

Sermon 8 November 2015

<룻기 3:1-5, 4:13-17, 마가 12:38-44>

여러분은 책 읽는 것을 좋아 하시나요?

제가 휴식을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좋은 소설에 빠져 드는 것입니다.

저의 삶의 소박한 기쁨 중에 하나는 단골로 가는 제가 좋아하는 커피숍에 책을 가지고 가는 것 입니다.

우리는 좋은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나요?

그것이 책이든, 영화이든, T.V, 유튜브, 또는 페이스북에 있는 것이든 말입니다.

저는 자주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혼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각 사람들 마다 행복한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와 고통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 에게 의미가 있는 특별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쌓아가는 삶의 추억들로 가득합니다.

추억들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어떤 기억들은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고 또 어떤 기억들은 우리 마음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어떤 추억들은 떨쳐버리려고 애써도 우리 상황이 안 좋을 때 갑작스럽게 되살아나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모든 사람의 삶은 특별하고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오래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으나 이런 이질감 밑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상황들이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우리가 거룩하다고 부르는 성경 안에 이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메시지일 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충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들을 뛰어넘어 그 이상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룯기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여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듣습니다.

두 여인 모두 미망인 이었고 나이든 여인과 젊은 여인. 한 여인은 유대인이었고, 또 다른 한 여인은 모압 여성이었습니다. 모압 여성은 그녀의 시어머니의 나라인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추수를 하고 있는 밭 주변에서 남은 곡식을 따거나 이삭을 줍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 밭은 빵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고 그곳은 나오미의 죽은 남편의 친척 소유였습니다.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두 여인의 절박한 처지를 이해 할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가 룯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의 안식할 곳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나오미는 음모를 꾸밉니다. 어떤 계략이 꾸며지는 이야기나 실화 또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꾸며지는 계략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의 본문 전체를 보면 그 당시에 미망인의 무기력함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어쨌든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설정 됩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룯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룯은 보아스 에게 두번째 부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된 땅을 조금 사고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 되었을 때 룯의 권리는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죽은 남편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룯과 나오미의 이야기는 사랑과 헌신과 그리고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 입니다.

그 여성들은 롯의 아들인 오벳을 키웁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가 되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됩니다.

나오미는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게 되고 그 아이는 구약성경에 가장 큰 이름 중 한 명인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의 손자인 다윗의 시편은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슬픔을 달래주고 힘을 주며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롯기는 훌륭한 이야기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다방면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다른 미망인으로부터 또 다른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도입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그 때의 상황을 설정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실 최후의 만찬과 그가 겪게 될 배반과 체포 전에 그가 행한 마지막 가르침들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단지 마가복음 안의 우연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여러 번역본을 보면 문법이나 구두법에서 매우 다릅니다. 그리스어에는 쉼표라는 것이 없습니다.

저의 새 국제판 성경(NIV) 번역에서는 38 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그것은 한 문장입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주변을 걸어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등등의 문장이 뒤따라 옵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긴 옷을 입고 걸어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여기는 중요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중요합니다.

두 문장 사이에 마침표도 없고 쉼표도 없습니다.

처음 NIV 번역본에서는 예수님의 경고 가운데 모든 율법학자들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번역본에서는 남에게 보여 주기를 좋아 하면서 걸어 다니는 율법학자들만 예수님께 비난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율법학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번제물 들이나 제물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지난 주에 들은 이야기의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기억 하십시오.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적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멋진 옷을 입고 큰 만찬에서 식사를 하며 호연하고 다니는 사람들, (비싼 차들과 우아한 레스토랑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법적인 힘을 남용하여 미망인의 집들을 비싼 가격으로 팔아 버리고, 그 돈을 자신의 지갑에 넣고는, 이미 무기력한

미망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장소 맞은편에 일부러 앉으십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자신이 헌금을 많이 한다는 것을 대놓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매우 공적인 장소입니다.

모든 "쇼"가 설정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미망인이 작은 봉헌을 하러 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상상할 수 있으며 아마도 사람들은 그 미망인을 비웃고 얽보았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그녀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남은 나머지에서 헌금을 드렸고 그것은 그들에게 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또한 다른 방법들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미망인은 그 하찮은 돈으로 어떤 것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Woolworth 나 Coles 에서 5 센트 2 개를 가지고 가서 무엇을 살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종교기관들은 아직도 그녀에게 그녀의 종교적인 임무를 감당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사랑은 어떤 번제물, 제물, 또는 종교적 의식 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일찍이 말한 것을 기억 하십니까?

이 이야기에 관한 다른 것은 마가는 우리가 생각해 왔던 그 사건들이 발생한 후 약 35-40 년 후에 일어났던 성전파괴 이후에 이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그 다음 대목에서는 그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봉헌들과 이 모든 쇼들은 결국에는 무의미함으로 돌아갑니다. 그 모든 것들이 쓸모 없는 것이 됩니다. 마가는 진정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법에 대해, 도덕에 대해, 과부와 그리고 우리들 중에 힘 없는자를 돌봄에 대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이나 예수님의 시대에서나 나오미와 룻의 때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때때로 이 성경 이야기들이 너무 익숙하게 되어서 그 말씀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상관없이 항상 적용되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예수님 방식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항상 읽기에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부와 안락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들에 의해 감명을 받는지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을 종교의 함정들을 보전하는데 급급하고 우리 매일의 삶을 인도하는 복음의 중심을 놓치고 생활하나요?

신앙은 크리스천이 필요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인도해 줍니다.

만약 신앙이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살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수세기에 걸쳐 가난한 자들을 위한 피난처이자 도움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항상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복지국가의 시대에는 어느 정도의 안전망이 있습니다. 물론 이 안전망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언제나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요. 겨울에 난방을 할 수 없고 또는 렌트비 및 각종 고지서를 내지 못하며 스스로 먹거리를 해결할 수 없는 외로운 노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이런 일들은 비록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노인 여성들이 고립되어 그들의 남은 여생을 홀로 지내실까요? 그들 중 많은 분들은 수 십년전 전쟁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미망인들을 만들어 내고 그들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한국에서 한국전쟁 후에 약 300,000 명의 미망인들과 약 517,000 명의 피부양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굶주린 배를 쥐고 시골 변두리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힘에 부쳐 할 때 교회들과 다른 신앙에 기초한 비영리 단체들이 들어와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이 여성들이 스스로 생존해 나갈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 주었고 바느질 그리고 뜨개질, 닭들을 기를 수 있는 재료들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의 여성들은 오랫동안 남성에 비해 덜 중요한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2 주 전 우리는 많은 한국 여성들이 너무 자주 겪은 고통, 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종종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미망인은 남편의 안 좋은 건강에 대한 책임 추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과 기독교 신앙은 이런 관점들을 재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과 존경의 복음은 뿌리를 내리고 자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보고 이해하셨듯이,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둘 것을 언제나 요청 받습니다.

제가 남편과 오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남편은 우리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살았을 때 교회 교인 중 한명인 아름다운 여인이야기를 상기 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흔 살이 다 되었습니다. 그녀는 20 대에 아이 넷을 둔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 교회에 깊이 관여 했으나 그것에 결코 비판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배우는데 열정적이었고, 새로운 찬송가를 배우기 좋아했으며 유머감각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녀는 약한 피부로 매우 고생을 했고 붕대를 항상 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교회에 올 때 잠수복을 입고 오게 될 것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광경을 상상하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교회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가족 혹은 식구라는 단어였습니다. 교회 식구.

왜냐하면 그녀에게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 혹은 식구라 함은 부모와 자녀들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거기에 잘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주 흔하고 쉽게 사용되는 듯한 그 용어가 사실 그녀에게는 따뜻하고 포용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소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것을 이야기 함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도 소외감을 느꼈을지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표면적인 것을 뛰어넘어 진정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볼 수 있는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랑은 규모나 지위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 사랑은 가장 낮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날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성경에 적혀있는 매우 다른 시기에 발생한 이야기에서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지혜가 있음을 발견하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지혜에 귀를 기울일 만큼 용기가 있다면, 시대에 상관없이 불변하는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